

2024. 3. 15.(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서울경제진흥원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동행사업담당관	이대희	2133-9400
동행사업2팀장	이현미	2133-9415
기술혁신팀장	김기범	2222-3810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seoul.rnbd.kr	

서울시, 약자 불편 덜어주는 혁신기술 개발기업 지원... 기업당 최대 3억원

- 약자동행 관련 기술·서비스 연구개발기업에 올해 총 18억원 투입, 전년대비 2배 규모
- 생계·돌봄, 건강 등 6대 약자동행분야 자립지원·안전·교육 등 지원하는 참신한 기술 대상
- 기술개발 지원과 컨설팅은 물론 제품·서비스 상용화, 판로개척까지 체계적+지속지원
- 4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 서면 발표 평가 후 6월 최종 선정 기업 발표

저시력자를 위한 영상분석 버스노선 번호 안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의사소통 및 실내이동지원서비스...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기에 약자를 위한 기술 투자는 모든 시민을 위한 투자라는 목표로 추진중인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지원규모를 2배로 늘렸고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현장전문가 기술컨설팅, 공공평가 면제를 비롯해 해외판로개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약자동행 관련 기술서비스 연구개발기업에 올해 총 18억원 투입, 전년대비 2배 규모>

- 서울시가 약자의 어려움과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약자와의 동행’ 관련 기술개발에 나선 기업을 육성하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협소한 시장과 낮은 수익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기술 개발기업에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인건비·연구활동비 등을 투입해 기술·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약자들이 좀 더 편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과제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 특히 올해는 전년(9억원) 보다 두배 늘어난 18억을 투입해 더 많은 약자기술 개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는 총 75개 기업이 공모에 참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고, 기업당 최대 2억 4천만원을 지원받아 기술을 고도화 중이다.

<2023년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최종 선정과제>

대상	선정과제 세부내용
이동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시력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반 버스 노선 번호 안내 솔루션 ▸ 이동약자 맞춤형 병원동행, 병원이동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어르신	▸ 자연발화기반 인지장애 예측/분석 활용한 건강 및 맞춤형돌봄 서비스 자동화 개발
장애인	▸ 인공지능(AI)인식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의사소통 및 실내이동지원 스마트 서비스

- 사업 참여 대상은 ▲ 생계·돌봄 ▲ 주거 ▲ 의료·건강 ▲ 교육·문화 ▲ 안전 ▲ 사회통합 등 약자동행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6대 영역이다. 해당분야 취약계층의 자립지원과 안전, 건강, 교육 등 생활을 개선하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참신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면 된다.

- 이외에도 6대 분야에 포함되진 않지만 기타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분야도 가능하다.

〈 2024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제 내용〉

영역	지원과제
생계·돌봄	1.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
	2.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주거	3. 주거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
의료·건강	4.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
	5.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 회복 촉진
교육·문화	6.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
	7. 문화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안전	8.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 대응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사회통합	10. 시민 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기타	11. 기타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수요조사 사례 등

-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현장전문가와 연계한 기술컨설팅을 지속하고 실증 완료 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 시엔 공공성 평가 면제와 조달청 시범구매 지원을 통한 공공시장 판로 확대 등 상용화도 체계적으로 돕는다.

* 조달청 혁신제품 :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돼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제품. 공공성 평가 및 혁신성 평가 단계를 통과해야 심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서울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실증 완료 시 공공성 평가 단계 면제 (서울시-조달청 약자기술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3.12.)

*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시범사용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제공, 시범사용 후 그 결과를 평가·피드백하는 사업.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실증사례를 형성하여 기술·서비스 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외에도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 개발완료된 약자 기술의 판로개척 등 지속적인 성장도 꼼꼼하게 지원한다.

-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벤처·창업기업은 오는 4월 19일(금) 16시까지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최종선정 기업은 6월 발표 예정이다.
- 공고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접수페이지 또는 서울경제진흥원 기술혁신팀(☎2222-380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약자를 위한 기술은 수요처가 협소하고 경제성이 낮아 약자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기업들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약자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약자기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예시) 기업A는 저시력자, 시각장애인이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번호를 인식하지 못해 버스를 놓치거나 잘못 타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하여, 핸드폰 카메라로 버스 노선 번호를 손쉽게 인식하고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돕는 ‘저시력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반 버스노선 안내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23년 서울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현재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실증을 진행 중이며, 실증 완료 시 저시력 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24년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특별시

sba 서울경제진흥원

2024년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024.3.12(화)~
2024.4.19(금) 16시



- 접수기간 2024.3.12(화)~2024.4.19(금) 16시
- 지원대상 서울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
- 지원분야 약자가 겪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전 분야
- 지원내용 실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의 비용
- 지원규모 총 1,800백만원, 8개 과제 내외(최대 3억원)
- 신청방법 SBA 서울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eoul.rmbd.kr>)
- 추진일정

2월~3월	4월	4월~7월			7월
과제 접수	서류평가 (기술성평가)	실증기관 발굴, 매칭 (서울시) 요건검토 진행 (SBA)	발표평가	현장점검	최종선정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12개월)

문의처 서울경제진흥원 기술혁신팀 02-2222-3808 / 02-2222-3817